

##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문 은 정\*\*

Moon, Eun Jung

심 희 옥\*\*\*

Sim, Hee Og

### ABSTRACT

In this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quality of children's friendships, their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434 4th, 5th, and 6th graders replied to a series of questionnaires. Girls reported higher levels of quality of friendship in the areas of emotional security, help, intimacy, and acknowledgement than boys. Boys showed higher levels of self-perception in cognitive competence, athletic ability and social acceptance than girls. Positive friendship quality and friendship satisfaction were related to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Variables that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were social behavior, cognitive competence, global self-worth, pleasure in companionship, and athletic ability. For boys, variables which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were social behavior, cognitive competence, pleasure in companionship, and global self-worth. For girls, the variables were global self-worth, cognitive competence, trust, social behavior, and athletic ability.

**Key Words** : 친구관계의 질(friendship quality), 자아지각(self-perception),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0월 27일

\* 본 논문은 2001학년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가족아동학전공 부교수, E-mail : simh@kunsan.ac.kr

## I. 서론

요즘의 아동들은 이른 시기부터 가족이 아닌 또래와 접할 기회가 더 많아져 많은 시간을 또래나 친구와 함께 보낸다. 친구관계는 다양한 문화권과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한 형태로 자발성, 상호성, 친밀감 등을 특징으로 하며 다른 사회적 관계들과 같이 사회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이며(Bukowski, Newcomb, & Hartup, 1996), 아동기 사회화의 주요 환경인 학교에서 사회적 지지의 강력한 자원이 친구관계이다.

친구관계는 또래관계와는 다른 개념으로 Epstein(1983)에 의하면, 또래관계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닌 집단 내 관계로 구성원이 많고 친구관계에 비해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낮은 특징을 갖고, 친구관계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1차적 집단으로 비교적 적은 수로 구성되며 구성원들간에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높은 관계를 말한다.

Sullivan(1953)은 친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청소년 전기 아동의 발달과업이라고 주장하며 친밀감은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고 상호간의 만족을 추구할 때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친구관계는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기여하고, 또래와의 경험은 성공적인 대인간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며, 또래들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직접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데 이처럼 또래간 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안전감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친구관계의 질이라 함은 들간의 이원적인 관계의 특성으로 아동이 제공하는 지지, 동료애, 갈등의 수준 등을 말한다(Bukowski & Hoza, 1989). Hartup(1993) 역시 친구관계가 아동에게 사회

적 기술을 습득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서적·인지적 자원을 제공하며, 자기인식과 자아개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친구는 긍정적인 지원을 많이 제공해주는 관계이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의 위험은 내재하기 마련이고(Rook, 1984), 특히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인 또래 친구관계에 갈등과 경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Shantz & Hobart, 1989). 따라서 친구관계의 질은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측정해야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Berndt, 1996).

친구관계의 질은 아동기 학교적응의 잠재적인 기여요인이라 측면에서 중요한데(Furman & Bierman, 1983; Youniss & Smollar, 1985),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중 지지적인 측면뿐 아니라, 갈등과 경쟁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이 있다. 갈등과 경쟁이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특성인 데 Hartup, French, Laursen, Johnston과 Ogawa(1993)는 아동의 갈등이 대개 친한 관계, 즉 상당한 기간 내내 접하게 되는 사회적으로 의존적인 개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기 쉬우며 부모, 형제, 친구관계는 이런 갈등의 대다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친구관계는 때로 갈등을 수반하지만 친구관계에서의 갈등은 보통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친구사이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나타낸 갈등은 긍정적으로 아동에게 문제 해결력을 발달시켜 사회인지적 성장과 지적발달을 가져오게 할뿐만 아니라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방향에 접근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배

중순, 1989).

친구관계의 질에 있어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다양하다. Parker와 Asher(1993)는 친구관계의 질에서 초등학교 3, 4, 5학년 여아가 남아에 비해 상호간에 더 친밀하고, 갈등 해결을 더 잘하고, 인정과 돌봄을 더 해주고, 도움과 안내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나라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의 성차를 살펴본 윤미경(1998)의 연구에서는 친밀감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은혜(1999), 이은혜와 고윤주(1999)와 배선영(1999)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밀감, 정서적 안정 등의 긍정적 측면을 더 높게 지각하지만, 이은혜(1999)의 초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 갈등과 경쟁에서 남아가 높고, 이은혜와 고윤주(1999)의 초등학교 3, 5학년생과 배선영(1999)의 초등학교 5학년생의 경우 친구관계의 부정적 차원은 남녀 차가 없었다. 김정윤(2000)의 초등학교 3, 4학년생 연구에서는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고, 부정적 측면인 경쟁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친구에게 더 경쟁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미(2000)의 초등학교 5학년생 연구는 친구관계의 질의 긍정적인 면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높고 부정적 관계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인간행동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있는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 인간이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게 되면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게 되면 자기 행동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아동들의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어떠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

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천은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들이다. Cooley(1902)는 중요한 타인은 사회적 거울 역할을 하며 정보를 주고 아동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 과거에는 아동의 자아지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타인으로 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아동기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인 친구관계와 자아지각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 (오원정과 이은혜, 2000).

자아지각의 하위 변인 중 성차를 보고한 논문을 보면, 이은혜, 신숙재와 송영주(1992)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신체적 능력, 인지 능력, 사회적 수용, 외모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긍정적으로 자기를 지각하고 사회적 행동에서는 여아가 더 긍정적으로 자신을 지각하였다고 한다.

적응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환경 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말한다. 즉 적응이란 개인이 욕구를 갖고 그 욕구가 과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부적응 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 학교적응이라 함은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 환경에 바람직하게 순응하는 것이다. 학교교육과 학교생활이 지적 기능의 발달이나 기술의 습득에 목적을 두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화하고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발달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집단에서의 아동의 적응은 이들의 발달에 중요하다. 만일 만족할 만한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긴장, 갈등, 절망, 불평 등의 부정적인 감정

은 아동의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의 구체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이영재(1988)는 취미 및 특기, 학업관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행정에 대한 태도,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등 6가지 영역을 살펴보았다. 정순례(1992)는 학교에 대한 선호, 교사에 대한 선호, 학교에서의 활동성,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 및 영향력, 친구관계 지각 등을 학교적응에 관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Ladd(1990)는 학교를 좋아하고 학급활동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교육적 경험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아동의 발달이 방해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교환경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학교에 대한 지각(즉, 드러난 긴장과 학교 기피), 학업관련 실천 결과(즉, 학업 관련 행동과 학업적 준비)를 그 하위 영역으로 하여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적응 영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에 대한 지각, 학교·학급에서의 활동성, 그리고 학습관련 태도 및 행동, 세 영역을 학교적응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학교적응에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에서 윤아기(1996)의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측면에서 여아가 높았고, 김정윤(2000)의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는 선생님에 대한 태도에서 여아가 높고 급우에 대한 태도는 남아가 높았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친구관계 형성을 도울 것이라는 또는 만족스러운 친구관계가 자긍심을 높여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아개념과 친구관계를 관련지어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Berndt, 1996). Berndt와 Miller(1993)는 친구관계의 질 중 긍정적 요소는 자신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과 유의한 정적인 관련이 있고 친구관계의 갈등 같은 부정적인 차원은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행동의 자아지각과 부적 관련이 있다고 한다. Bagwell, Newcomb과 Bukowski(1998)의 종단연구에서 5학년 때의 상호적인 친한 친구의 유무가 12년 후의 전반적인 자아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오원정(1999)과 오원정과 이은혜(2000)의 초등학교 5학년생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친구의 긍정적인 기능 모두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 같은 자아지각의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경우 자신이 사회적으로 덜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고 또한 경쟁을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긍정, 부정 두 측면 모두의 친구관계의 질에 초점을 둔 Berndt와 Keefe(1995)는 지지적이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갖고 있는 중학생은 점점 더 학교에 관여하게되는 반면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경쟁적인 학생은 점점 파괴적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황경미(1998)는 초등학교 6학년생 대상으로 아동이 친한 친구와 도움, 친밀, 인정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학교적응이 보다 긍정적이고, 갈등과 경쟁이 높으면 학교적응이 보다 부정적이라고 한다. 김정윤(2000)은 초등학교 3, 4학년생에게서 친구관계에서 갈등은 학교·학업에 대한 선호와 부적의 관계가 있고 학교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고 한다. 이은혜, 김정윤과 오원정(2001)의 연구는 초등학교 3, 4학년생이 친한 친구와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친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친구와의 경쟁과 갈등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학생들 자신이 자기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신이 별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느냐에 따라 또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의 행동은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는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이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김유경, 1997).

자아개념 수준에 따른 적응경향은 학교생활, 장래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생활과 교우생활 중 학교관련 영역(학교와 교우생활)에서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미 있게 잘 적응한다고 밝히고 있다(강주원, 1983). 또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만족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김진용, 1988; 민병수, 1991; 장호성, 1987).

친한 친구와의 관계의 질과 자아지각의 하위변인중 어느 변인들이 학교적응을 보다 더 잘 설명해 줄 것인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보다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자아지각이 친한 친구와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인지 또한 친구관계의

질이나 자아지각 하위변인 중에서 어느 하위변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더 중요한지 탐색하고자 한다.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지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해되고 있는데(Berndt, 1996) 이런 탐색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을 알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학교적응을 위하여 어느 차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에 대한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변인들의 성차가 보고되고 아동의 발달과 사회화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Gilligan, 1982; Kurdek & Krile, 1982; Maccoby, 1990; Rubin, 1982) 연구변인들의 관계에서 성에 따른 차이점도 탐색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지각이 아동기 사회화의 주요 환경인 학교에서의 적응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탐색하여 아동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성, 친한 친구와의 관계, 자아지각, 학교 적응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학교적응을 예측해 주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의 하위변인은 무엇인가? 이에 성차가 존재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2개교의 4, 5, 6학년생이었다. 두 학교에 모두 47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어 461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반응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43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9-12세이고, 평균연령은 10.85세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4.1%,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이 33.6%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은

서비스와 판매직이 65.7, 사무직과 전문직이 21.0%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6.5%이고,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이 23.0%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서비스와 판매직이 38.3%이고, 사무직과 전문직이 5.5%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434)

변인	내 용	대상자	백분율(%)
성	남	240	55.3
	여	194	44.7
학년	4	140	32.3
	5	147	33.9
	6	147	33.9
아버지의 학력 <sup>1</sup>	초졸	14	3.2
	중졸	34	7.8
	고졸	235	54.1
	전문대졸	32	7.4
	대학 및 대학원졸	114	26.2
어머니의 학력 <sup>2</sup>	초졸	11	2.5
	중졸	68	15.7
	고졸	245	56.5
	전문대졸	21	4.8
	대학 및 대학원졸	79	18.2
아버지의 직업	무직·단순노무직	43	9.9
	서비스직·판매직	285	65.7
	사무직	88	20.3
	전문직	3	0.7
	기타	15	3.5
어머니의 직업	무직·단순노무직	242	55.7
	서비스직·판매직	166	38.3
	사무직	23	5.3
	전문직	1	0.2
	기타	2	0.5

<sup>1</sup> 5명 무응답 <sup>2</sup> 10명 무응답

## 2. 측정도구

### 1) 친한 친구와의 관계

친한 친구와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

여 이은해와 고윤주(1999)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먼저 가장 친한 친구를 한 명 쓰도록 하고 그 다음 이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일련의 문항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도구는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만족감, 3가지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은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의 6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2가지의 부정적 기능은 '갈등'과 '경쟁'이고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으로 모두 9가지 하위영역으로 되어 있고, 9가지의 하위영역별로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아주 조금 그렇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4점)'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한 친구와 관계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 그리고 만족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 하위영역의 Cronbach alpha의 범위는 .72~.87이었다.

### 2) 자아지각

아동의 자신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용 자아지각 척도(이은해, 신숙재와 송영주, 199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arter(1985)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에 기초해 우리 나라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이 척도는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 6가지 영역의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이 척도의 반응은 먼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지각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자신이 그 문항의 서술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다시 결정하는 2단계 응답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예비조사시에 2단계 응답방식이 아동들에게 어려움

이 많아,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로 반응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 하위영역의 Cronbach alpha의 범위는 .72~.85이었다.

### 3)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은 광기상(1988), 정순례(1992)와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6)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로 해서 황경미(1998)가 재구성한 학교적응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학급에서의 생활을 얼마나 잘 해나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그 하위영역은 '학교에 대한 지각(9문항),' '학교·학급에서의 활동성(10문항),' '학습관련 태도 및 행동(10문항)'의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 alpha는 .84이었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초등학교 4, 5, 6학년생 10명씩 3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미전달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어려운 단어는 쉬운 단어로 교체되었다. 본 조사의 실시는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선정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미리 연구의 취지와 유의사항,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선생님이 직접 수업 시간에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된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그리고 성, 친구관계의 질, 자아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련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성,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성, 친한 친구관계,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성, 친한 친구관계,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친한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중 정서적 안정, 친밀, 인정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도움은 여자가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자아지각 중 인지적, 신체적 능력과 사회적 수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갈등과 경쟁은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있다. 친구와 긍정적 관계를 가질수록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나, 갈등이나 경쟁 같은 부정적인 관계가 높을수록 친구에게 불만족함을 알 수 있다.

친밀을 제외한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긍정

<표 2> 성, 친구관계의 질,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성 <sup>a</sup>	-																
2. 정서적 안정	-.20****	-															
3. 신뢰	-.02	.58****	-														
4. 도움	-.09*	.73****	.61****	-													
5. 친밀감	-.24****	.58****	.49****	.50****	-												
6. 인정	-.12**	.70****	.54****	.70****	.51****	-											
7. 즐거움	.01	.57****	.69****	.65****	.49****	.51****	-										
8. 갈등	-.03	-.17****	-.13**	-.21****	-.03	-.17****	-.21****	-									
9. 경쟁	.01	-.07	-.03	-.04	-.03	.02	-.07	.29****	-								
10. 만족감	-.02	.63****	.76****	.65****	.49****	.55****	.79****	-.22****	-.10	-							
11. 인지적 능력	.14**	.15****	.18****	.17****	.11*	.31****	.13**	-.10*	.07	.16****	-						
12. 신체적 능력	.24****	.11*	.14****	.12**	.06	.18****	.10*	-.05	-.05	.10*	.29****	-					
13. 외모	.03	.14****	.15****	.14****	.03	.18****	.11*	-.09*	.00	.14****	.36****	.41****	-				
14. 사회적 수용	.13**	.18****	.23****	.17****	.07	.25****	.13**	-.06	-.01	.18****	.37****	.44****	.42****	-			
15. 사회적 행동	.02	.15****	.18****	.20****	.06	.25****	.17****	-.15****	.07	.16****	.42****	.13**	.29****	.37****	-		
16. 전반적 자아지각	.06	.12**	.20****	.18****	-.02	.17****	.17****	-.16****	.02	.22****	.32****	.27****	.46****	.44****	.44****	-	
17. 학교적응	.07	.20****	.28****	.26****	.11*	.25****	.27****	-.12**	.06	.25****	.44****	.28****	.32****	.31****	.46****	.44****	-

<sup>a</sup> 여자=0, 남자=1. \* p<.10. \*\* p<.05. \*\*\* p<.01. \*\*\*\* p<.001. \*\*\*\*\* p<.0001.

적 관계는 자아지각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있다. 친밀은 인지적 능력을 제외한 자아지각 하위변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와 갈등이 많을수록 인지적 능력, 사회적 행동과 전반적인 자아지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과 외모는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은 자아지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아지각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친한 친구에 대해 만족할수록 아동은 자신이 인지적, 신체적 능력이 있으며, 외모에 대해 만족해하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전반적인 자아 가치감은 높음을 의미한다.

친한 친구와 긍정적 기능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좋으며, 친한 친구와 갈등이 많을수록 학교적응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지각 전체의 하위변인 모두가 학교적응하고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있다.

## 2. 학교적응에 대한 친한 친구관계와 자아지각의 영향

학교적응을 잘 예측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친한 친구관계와 자아지각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전체와 성별로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학교적응을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사회적 행동, 인지적 능력, 전반적인 자아지각, 교제의 즐거움, 신체적 능력 순



〈표 3〉 전체와 성에 따른 학교적응을 예측해주는 친구관계와 자아지각의 하위 변인

변 인	b	$\beta$	부분 R <sup>2</sup>	R <sup>2</sup>	Adj-R <sup>2</sup>
<b>전 체</b>					
사회적 행동	1.57	.24	.21	.21****	
인지적 능력	1.14	.22	.07	.29****	
전반적 자아 가치	1.07	.20	.05	.33****	
교제의 즐거움	1.00	.16	.03	.36****	
신체적 능력	.51	.12	.01	.37**	.36
<b>남학생</b>					
사회적 행동	1.60	.26	.23	.239****	
인지적 능력	1.36	.28	.08	.31****	
교제의 즐거움	1.05	.17	.04	.34****	
전반적 자아가치	.74	.15	.02	.36**	.35
<b>여학생</b>					
전반적 자아가치	1.66	.30	.25	.25****	
인지적 능력	.96	.17	.07	.31****	
신뢰	.92	.17	.03	.35**	
사회적 행동	1.36	.19	.02	.37**	
신체적 능력	.66	.15	.02	.39*	.37

\* p<.05. \*\* p<.01. \*\*\*\* p<.0001.

이때 이들 변인에 의하여 학교적응이 36%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행동( $\beta=.24$ ,  $p<.0001$ ), 인지적 능력( $\beta=.22$ ,  $p<.0001$ ), 전반적인 자아가치( $\beta=.20$ ,  $p<.0001$ ), 교제의 즐거움

( $\beta=.16$ ,  $p<.0001$ ), 신체적 능력( $\beta=.12$ ,  $p<.01$ )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학교적응을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사회적 행동, 인지적 능력, 교제의 즐거움, 전반적 자아가치 순이며 이들 변인에 의해 학교적응이 35%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행동( $\beta=.26$ ,  $p<.0001$ ), 인지적 능력( $\beta=.28$ ,  $p<.0001$ ), 교제의 즐거움( $\beta=.17$ ,  $p<.0001$ ), 전반적인 자아가치( $\beta=.15$ ,  $p<.01$ )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중 사회적 행동이 남학생의 학교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와의 관계 중 교제의 즐거움만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여학생의 학교적응을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전반적 자아가치, 인지적 능력, 신뢰, 사회적 행동, 신체적 능력 순이며 이들 변인에 의해 학교적응이 37%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반적 자아가치( $\beta=.30$ ,  $p<.0001$ ), 인지적 능력( $\beta=.17$ ,  $p<.0001$ ), 신뢰( $\beta=.17$ ,  $p<.01$ ), 사회적 행동( $\beta=.19$ ,  $p<.01$ ), 신체적 능력( $\beta=.15$ ,  $p<.05$ )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중 전반적 자아가치가 여학생의 학교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와의 관계 중 신뢰만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 IV. 결론 및 논의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 친한 친구와의 관계, 자아지

각, 학교적응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먼저, 성차를 보면 친한 친구관계의 하위 영

역중 정서적 안정, 친밀감, 인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계의 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유창한 언어구사 능력이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Rubin, 1982), 사회화 과정에서 온정이나 감정이입 등 대인관계에서 애착하도록 강화되기 때문에 설명될 수 있다(Kurdek & Krile, 1982).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구에게 어렵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편안함과 공감을 표현하는 정도가 크고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여아는 남아보다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고 감정이입이 격려되는 등 관계 지향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데 비해 남아의 경우는 이러한 측면보다도 성취 지향적인 면이 강조되고 자기 주장적인 것에 대한 허용정도가 다른 것 때문일 수 있다(Gilligan, 1982; Maccoby, 1990).

친구관계 질의 긍정적 기능에 있어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보인다.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에서 성차를 살펴본 윤미경(1998)의 연구에서는 친밀감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배선영(1999)의 연구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정윤(2000)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에서 높았다. 이은혜(1999) 연구의 3학년생의 경우 교제의 즐거움에서 성차가 없고 나머지 긍정적 기능의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이 높았고 이은혜와 고윤주(1999) 연구의 3, 5학년생의 경우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의 세부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의 관계의 질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중, 후기 아동의 여학생이 친한 친구와의 긍정적 기능에서 남학생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자아지각의 하위변인중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사회적 수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기 주장적이며 성취지향적으로 강화되고(Kurdek & Krile, 1982), 신체적인 활동을 잘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에 성별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 윤아기(199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자아지각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학교적응에서는 유의한 남녀 차가 없으나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중 학교에 대한 지각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 $t(432)=2.40, p<.05$ ]. 학교적응에 관련된 성차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마다 대상은 다르지만 남·여학생 사이에 전반적인 학교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세부 영역에는 차이가 있었다. 윤아기(1996)의 경우 학교생활 측면에서 여아가 높았다. 김정윤(2000)의 경우 선생님에 대한 태도에서 여아가 높고 급우에 대한 태도는 남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학교에 대한 지각에서 남, 녀의 차이가 있어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교생활에서 아동을 지도함에 있어 남, 녀가 학교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동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Parker와 Asher(1993)의 결과처럼, 친한 친구와의 긍정적인 측면은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친한 친구와의 부정적인 측면은 만족감과 부적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친구관계 질의 긍정적인 차원이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고 갈등이나 경쟁 같은 부정적인 차원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낮음을 말해준다.

친밀감을 제외한 아동의 친구의 긍정적 기

능은 자아지각의 하위변인 모두와 즉,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친한 친구와 긍정적 기능이 높을수록, 즉 친구가 정서적 안정이 되고, 신뢰감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인정해주며, 교제의 즐거움을 제공할 때, 아동은 자신이 인지적, 신체적 능력이 있으며, 외모에 대해 만족해하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오원정(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친구관계의 하위영역중 인정이 전반적 자아가치를 제외하고 자아지각의 하위영역과 관련성이 가장 높아 친한 친구로부터의 인정받는 것이 아동의 자기개념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구관계의 부정적 기능중 갈등이 인지적 능력, 외모, 사회적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감 같은 자아지각하고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 갈등이 높을수록 일련의 자아지각영역에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와의 지나친 갈등은 바람직한 자아지각의 발달에 해로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연구(김정윤, 2000; 오원정, 1999; 이은혜, 김정윤과 오원정, 2001)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나 친한 친구와의 또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인 경쟁은 자아지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친한 친구 한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친한 친구에게는 경쟁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고 경쟁을 느끼더라도 친한 친구와의 경쟁은 자아지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를 확증하기 위해 친한 친구의 수나 친구관계의 상호성을 고려해 비교한 연구가 필

요하겠다.

한편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자아지각의 모든 하위영역 즉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아동은 자신이 인지적 능력이 있고, 신체적 능력이 있으며, 외모에 대해 만족해하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 받는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관계 내에서 자아를 정의하여 자아개념 발달에 기여하므로(Bukowski & Hoza, 1989) 중요한 타인으로서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동 자신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해할 수 있듯이 친한 친구와 긍정적 기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좋으며, 친한 친구와 갈등이 많을수록 학교적응은 좋지 않았다. 자아지각 전체의 하위변인 모두와 학교적응은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있어 자신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은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연구문제 2) 학교적응을 예측해 주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의 하위변인은 무엇인가? 이에 성차가 존재하는가?

친한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하위변인중 사회적 행동, 인지적 능력, 전반적인 자아가치, 교제의 즐거움, 신체적 능력변인에 의하여 학교적응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남을 도우며 바른 행동을 하는 사회적 행동이 원만한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와 자아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한 명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의 질보다는 자

신에 대한 지각 영역이 학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직접적인 친한 친구 한 명과의 관계 문제보다는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학교적응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아개념이나 자긍심 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아동의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생각할 때 후기 아동에게 소수의 친한 친구 외에 기타 다른 사람의 영향이 이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친구관계의 질 중에서, 친구와 함께 만나서 같이 있으면서 노는 교제의 즐거움만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분석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에 해당되어 친구를 만나면 신나고 함께 놀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남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또한 남학생에게 있어서 학교적응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변인이 사회적 행동인데 이는 적절하게 사회화된 행동이 남학생의 학교생활에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자아가치가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전체적인 자기의 상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친구관계의 하위영역중 신뢰가 여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결과는 흥미롭다. 학교생활에서 남학생은 서로 함께 만나 노는 것에 의미를 두는 반면 여학생은 신뢰 즉 친한 친구와 자주 못 만난다해도 또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가 이사해도 오래도록 친구로 남고 싶은 정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신뢰는 내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여학생들에게 친한 친구를 내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가 이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왜 이런 성차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은 할 수 없으나 남녀가 학교적응에 영향받는 변인에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청소년 전기 연령이면 이미 성에 따라 확고히 다르게 사회화되어 있는 것 때문일 수 있다.

인지적인 능력이 남녀 모두에게 학교적응에 두 번째로 중요한 데 이는 학교에서의 지적인 성취가 강조되는 우리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것, 선생님의 질문에 잘 대답한다고 자신을 지각하는 것 등은 남, 여학생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역임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자아지각중 사회적 행동이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고 친구관계의 질중 유일하게 친구와 교제의 즐거움 정도가 학교적응에 기여하였다. 이는 한 명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보다 다른 통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친구와의 교제의 즐거움 정도가 학교적응에 기여하는 것은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 해당되고 여학생의 경우는 전반적인 자아 가치감이 학교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 친구관계의 질중 신뢰만이 여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한 도시의 일부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생각하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평가하게 했기 때문에 친한 친구의 수를 여러 명으로 하거나 일반적인 친구나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

기 아동의 원만한 학교적응과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혀 가정에서 자녀교육, 학교에서 아동의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관계의 질, 자아지각 그리고 학교적응 측정에서 아동의 지각만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부모나 교사의 지각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면접법 및 관찰법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친한 친구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친구관계의 질 측정은 친한 친구 한 명을 대상

으로 한 결과이므로 친한 친구의 수를 여러 명으로 하거나 일반적인 친구관계의 연구와 비교가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를 동성이나 이성으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를 구분한 연구와 친한 친구관계의 상호성을 고려한 연구 또한 흥미로울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 친구관계와 자아지각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친구관계와 자아지각을 위한 생활지도 계획 및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주원(1983). 자아개념수준에 따른 적응경향성에 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기상(1988).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경(1997). 초등학교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윤(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용(1988).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유미(2000). 또래에 대한 아동의 내적 표상 모델과 또래 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1(4), 143-158.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종순(1989). 아동의 의견에 대한 일치여부와 친구관계 정도가 사회적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원정(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원정, 이은혜(2000).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지각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14, 36-78.
- 윤미경(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아기(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재(1988).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혜(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77-95.
- 이은혜, 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2(2), 225-242.
-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은혜, 신숙재, 송영주(1992). 국민학교 3-6학년 아

- 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6, 175-191.
- 장호성(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순례(1992). 현실요법에 근거한 학습 방법이 중학생의 교과 및 학교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46-365).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dt, T. J., & Keefe, K. A.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 Berndt, T. J., & Miller, K. A. (1993). *The assessment and correlates of adolescents' friendships*. Unpublished manuscript, Purdue University.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New York : Wiley.
- Bukowski, W. M., Newcomb, A. F., & Hartup, W. W. (1996). Friendship and its significanc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Introduction and com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1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Scribner's.
- Epstein, J. L. (1983). Examining theories of adolescent friendship. In J. L. Epstein & N. L. Karweit (Eds.), *Friends in schools* (pp. 39-61), San Diego : Academic Press. Inc.
- Furman, W., & Bierman, K.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54, 549-556.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85). *Manual for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In B. Laursen (Ed.),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 (pp. 3-22). San Francisco : Jossey-Bass.
- Hartup, W. W., French, D. C., Laursen, B., Johnston, M. K., & Ogawa, J. R. (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2), 445-454.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e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491.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4), 1081-1100.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Rook, K. S.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097-1180.
- Rubin, Z. (1982). *Children's friendships*.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ntz, C. U., & Hobart, C. J. (1989).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 Peers and siblings.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71-94). New York : Wiley.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 father, and friend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